

2018년도 표어
『열매를 맺는 교회』
(행 2:47)

NEW
순복음Life
제25호

발행일 : 2018 .5 .6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학대하게 생활하라



비
리
보
서

1
장
2
1
제



<이달의 간증>

-조은혜 성도-

할렐루야~!

민준이, 민재 엄마 조은혜 성도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도우시는 것을 체험한 것에 대해 우리 당진순복음교회 성도님들께 전하고 싶어 이렇게 간증 글을 쓰게 되었답니다. 먼저 제가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한 일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신평 중학교에서 송악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좋지 못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다보니 힘들었던 경우가 많이 있었고 결국에는 제가 학교 다니기가 힘들어졌었습니다. 그런 저의 상황 때문에 부모님은 다른 학교로 전학까지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타 지역으로의 전학이 아니었기에 이 지역에 있는 학교 다 똑같을 것이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송악고등학교에서 졸업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힘들지만 계속 학교를 다니기로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 내용은 매일매일 같았습니다.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학교 가기가 두렵습니다. 제가 두렵지 않게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얼마 뒤 저를 힘들게 하던 친구들이 한명씩 한명씩 자퇴를 하였고 저는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무사히 학교를 졸업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체험은 민재를 낳을 때입니다. 아기를 가지고 출산을 놓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낳게 해 주세요. 임신성

당뇨 및 전치태반, 갑상선기능저하 등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끊임없이 했는데 “주수에 맞게 정하여진 날에 출산하게 해 주세요”라는 기도는 당연하다 생각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기진통으로 엄청 심하게 고생하고 둘째 민재를 낳았는데요. 일찍 낳았는데도 몸무게 3.25kg으로 엄청 건강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기도는 조목조목 세세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크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체험은 얼마 전 남편의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돌았습니다. 순간 잔뜩 겁이 나고 걱정되어 교회 기도팀에 중보기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후 남편은 회장님의 호출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이제 회사 생활 끝이구나.’라는 생각에 착잡한 마음으로 회장실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내가 자네 정말 좋게 보고 있어~ 월급20% 인상시켰으니 더 열심히 일 해봐”라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다더군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018년 저희 가정에 주신 말씀인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말씀을 열심히 실천해 열매 맺는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도알아가기...



1. 남편분 어떻게 만나셨고 어떤 점이 좋으셔서 결혼 하셨어요?

아는분 소개로 만났는데요. 안동댐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카라 있는 니트티에 어머니께서 아들 선보려 간다고 니트 점퍼까지 사서 입혀 보내셨더라고요. 얼마나 노티나고 촌스럽던지 엄청 아저씨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만난 이후로 우린 거의 매일 만났어요. 그 사람이 퇴근시간 맞춰서 직장 앞에 와 있곤 했어요. 이렇게 매일보니 착한 그 사람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2. 아이들의 성격이 엄마를 닮았나요? 닮은 점 다른 점 말씀해주세요.

미경이가 저를 닮아서 성격이 급해요. 진욱이는 저와는 다르게 조금 느린 편이구요~ 성격이 무난해서 누구하고나 잘 어울리더라고요.

3.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어릴적부터 교회는 다녔어요. 친정엄마가 신앙생활 하셨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녔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저도 직장생활하면서 뜯해졌어요. 그러다가 여기 당진에 와서 송집사님 전도로 다시 신앙생활하게 되었지요.

4. 본인의 성격을 짚어주세요.

좋은 점은 그닥 떠오르지 않구요. 안 좋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성격이 너무 급하구요.

나를 돌아보기에 앞서서 다른 사람을 자꾸 비판하게 되더라고요.

안그럴려고 노력중입니다.

5. 미경이가 미술에 재능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엄마를 닮은건가요?

조금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손으로 하는 걸 좋아했어요.

진욱이 어렸을 때 대바늘로 조끼도 떠서 입히고 십자수도 놀았었거든요.

6. 본인 이름으로 삼행시 지어주세요.

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주시고

영...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

미... 미리 예비해주신 그 사랑에 순종하며 은혜로 나아갑니다.

7. 집사님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뭐든 맡겨주시면 열심히 할 생각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재활용과 성가대 계속 열심히 할거구요. 특히 힘으로 하는 일을 더 좋아해요^^.

8. 집사님이 올해 초 건강이 안 좋으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드시던가요?

내가 믿음생활을 한다면서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는다 하면서 세상에 한발 주님께 한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지요.

9. 실천사항이 ‘주님의 은총을 받으라’입니다.

무슨 은총을 받고 싶으세요?

구원의 가정이 되길 원해요. 저와 애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남편과 함께 믿길 원해요. 혼신예배 같은 때에 혼신예배 간다고 말하면 남편이 새신예배는 없느냐고 말해요. 그럴때면 많이 속상했거든요. 온전한 믿음의 가정 돼서 마음 편히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10. 하나님은 집사님께 어떤 분이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찾고 구하고 두드린 것에 대해 응답 주신분 요. 마리아 혼신예배 드릴 때 시댁에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에 가야 했거든요. 그래서 혼신예배 참석 놓고 기도 했어요. 중보기도도 받고 혼자도 기도하고 기도회 때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남편한테 일이 생겨서 못가게 된거죠. 그래서 저는 혼신예배를 무사히 드릴 수 있었어요. 그 모든 일은 우리 주님이 해 주셨습니다.^^

11.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성구는 뭐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라는 말씀이구요. 저는 이 말씀 아주 좋아하고 또 삶에 간증이 있는 말씀이에요. 혼자 신앙생활 하다 보니 현금생활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연말에 밀릴 때가 많죠. 그때 제가 기도했을 때 주님이 여러번 들어주셨어요. 애들 보험료가 나오는 일도 있었구요.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에서 채워 주셨어요. 그래서 현금을 드릴 수 있었어요.

12. 우리부부는 참 ()하는 부부이다. 괄호를 채워 주세요.

우리부부는 무엇을 하자고 상대방에게 말했을 때 토 달지 않고 잘 따라주는 부부이다.

13. 말씀 중에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있으신가요?

누구든 좋은 모습만 있는 건 아니고, 항상 좋게 행동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면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안해야지 하는데 저랑 자꾸 비교하며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저의 달라져야 할 부분이에요.

14. 집사님이 생각하시는 참다운 크리스천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크리스천요.

15.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대요.

집사님은 죽어서 무엇을 남기시겠어요?

지금은 진육이와 미경이 그리고 저 이렇게 셋만 하나님을 믿지만 나중엔 시댁 식구까지 모두 주님을 믿는 믿음의 가문을 만든 후 천국가고 싶어요.

16. 어떤 사람이 내게 이런 말을 해줄 때 가장 힘나더라 하는 것 말씀해 주세요.

초반에는 제가 세상일과 주님일이 겹치면 거의 세상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믿음생활을 계속 하다보니, 점점 주님의 행사와 주님의 일을 우선시하게 되더라고요.

때때로 저보고 ‘신앙생활 요즘 열심히 한다’ 라고 누군가 말씀 해 주실 때 그런 말 들을 때 힘이 났어요.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17.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을 아프시게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요. 집사님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주일예배든 수요예배든 들은 말씀에 대해 제가 순종하고 살 때 우리집안은 평안했구요. 말씀에 토를 달 때는 남편이 교회에 가는 것을

뭐라 뭐라 해서 남편과 다투게 되고 제가 결국은 성전에 못 올라가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18. 낮 기도회 열심히 나오시는데요. 요즘 집사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남편구원을 놓고 기도 하고 있구요. 장막을 놓고 기도 하고 있어요.

남편이 요즘 직장생활 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안동으로 이사 가자는 말을 종종해요. 여기 사람들 정이 안간다고 말하면서요.

집을 사버리면 이사 가자고 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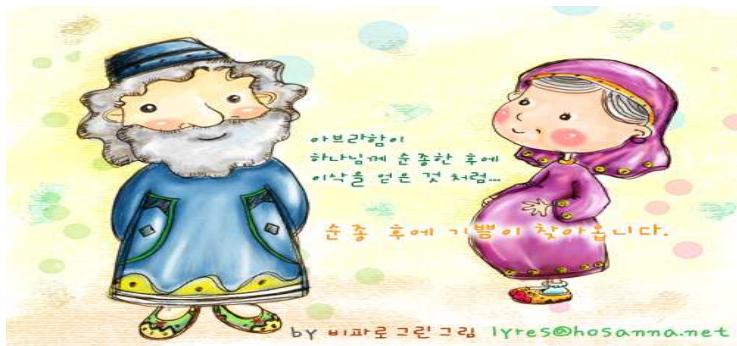
19. 성가대에서 사역하고 계신대요. 가장 은혜 받은 찬양 있으신지요?

‘내가 너와’라는 찬양요. 두려울 때 나와 함께 계시고 놀랐을 때 나의 하나님 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강한 손 펴신 팔로 지키신다는 가사가 나와요. 가사에 큰 은혜 받은 찬양이에요.

20. 이영주 구역장님 좋으시죠?

저희 구역장님께서 어르신들 대하시는 모습 닮고 싶어요.

살갑게 대해 드리고 요리도 맛난거 해서 대접해 드리고 성도님들 섬기시는 것 보면 대단하시다 생각들어요.



웃고 즐기는 학교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가 끝나면 성전 맨 뒷자리에는 아이들의 치열한(?) 자리다툼이 있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영아에서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까지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먼저 받기 위한 작은 경쟁의 자리입니다. 어른들 눈에는 ‘뭐 별 거라구’ 하실 수 있겠지만 아이들은 1등으로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기 위해 톡톡 거리기도 합니다. 어쩌다 먼저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할 일이 생기면 먼저 온 보람 없음에 눈물 훌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 양보도 배우고 동생들 챙기는 것도 배우며 어엿한 언니 오빠가 되어가고 있는 예쁘고 착한 아이들입니다. 육체에 불편함을 병원 치료에만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깊은 믿음을 아주 작은 자 일 때부터 배워 나가는 어린 아이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깨끗하게 또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치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부모님들도 축복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 하신 말씀을 이 아이들이 모두 체험하고 고백하는 입술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해 수소서

결심과 실천



장명회 집사

‘새벽에 너를 도우리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새벽기도 일주일에 세번을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가정으로 회복시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새벽제단 다짐 후 벌써부터 영적인 움직임이 있어 감사드립니다 ^^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후 주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남편과 아직은 통통거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딸 하연이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통해 마음가짐을 달리하며 가정을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아들과 신앙 안에 서려고 노력해주는 며느리 혜주 또한 신앙의 협력자로 인도해 주시니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 가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네게 복이라’ 아멘 ~~

이종희 집사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저의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육체의 병 조차도 영적인 부분으로부터 시작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 아파해서 저의 영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심을 말씀 드립니다. 이를 하여 ‘삼삼삼’ 작심입니다.

일 : 새벽예배 일주일에 세 번과

이 : 가정예배 일주일에 세 번과

삼 : 마지막으로 성경 하루에 세장 읽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저의 ‘삼삼삼’ 결심입니다. 이렇게 공개하지 않으면 제 스스로 약속을 파하게 될 것 같아서 라이프지의 결심과 실천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결심합니다.

이 결심을 통해 저의 영성을 회복하고 저의 두 자녀가 신앙으로 회복하며 가정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열매 맺겠습니다

임경아 : 모든 일 두루 다 잘 되는 만사형통은 내것!

이종희 : 두 아들 병관이와 병연이의 영육이 강건 하길~

장명희 : 가족 모두 영성이 충만하고 특히 경환의 직장 문제
해결과 하연이 건강하게 자라길

인정자 : 치료와 회복의 길이 열리길

금영미 : 매일 성전 밟기를 통하여 남편 구원

이영선 : 연주가 원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학에 합격!

김정임 : 주일 성수!! 그리고 남편 구원과 가족들 건강~

김정화 : 남편과 아들들이 굳건한 믿음위에 서서 열심 있는
신앙 생활 하길~

마리아 여선교회

감사 릴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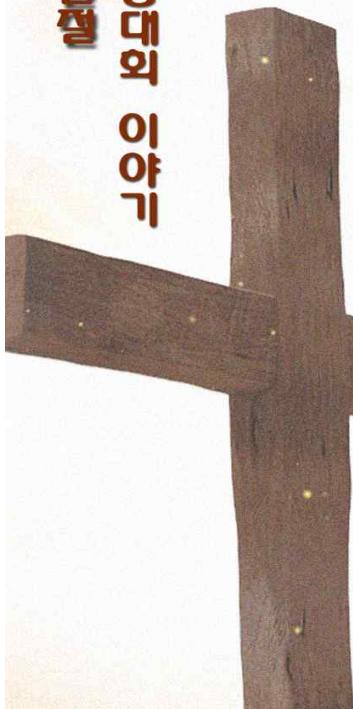
이병철 장로님

그저 나 밖에 모르며 받는 것만 좋아하고 섬겨 출출 모르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최고의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고
토끼 같은 자녀 셋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신실하신 목사님을 비롯하여 너무 좋은 우리교회 성도님들과 더불어 신
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성김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할 분은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뒤로 하고 교회와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언제나 헌신하시는 김희주 집사님을 추천합니다.

다음 릴레이 주자: 김희주 집사님

부활절 예동대회 이야기







Spring



무이기 페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직 살아여 그 날이 가까울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화 10:25)





Travel



늘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떠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행2:46)





* 삶의 네비게이션

- essay.6 -

길을 모르는
사람이 목적지를
찾아 간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흔한스럽고
당혹스러운 일
입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길을 안내하는
네비게이션이
있다면
안심하고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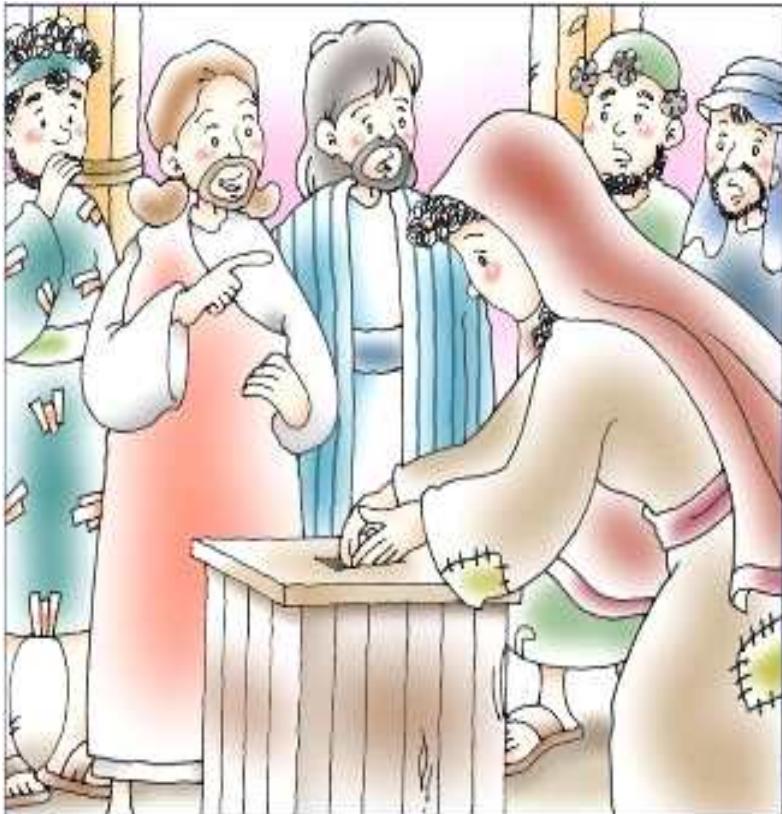


주님은
목적지를 양아는 우리에게
작로나 우로나 차우침 없이
양상 옮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에 따라
안심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탁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널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노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히 23:1~3)

성경 습은그림 찾기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현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눅 21:3~4)
[승은그림:무, 커피 잔, 하트, 꽃 한 송이, 야구 방망이]



1. 예수님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의 뜻은(마16:18)
2. 하나님의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란 뜻이죠(사48:17)
3. 게으른 자는 음식을 먹기 위해 손을 그릇에 넣고도
이곳으로 들어 올리는 것을 싫어하죠(잠19:24)
4. 말없이 조용히 생각하여 깊은 의미를 깨달아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죠(수1:8)
5. 기쁘게 받아 들인다 라는 뜻이죠(사58:5)

우리는 다니엘 유초등부

안녕하세요. 라이프지에 우리교회 꾸러기들인 다니엘 유초등부 이야기를 살짝 얻어 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3부 순서 하는 모습이나 특별행사 등이 진행되는 것들을 많은 성도님들과 공유하고자 꾸며진 공간입니다.

다니엘 유초등부에는 매달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4월은 천국 이라는 주제로 3부 순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주는 모든 성도님들도 열심히 준비하신 부활절 유통 연습을 하고 출전해서 받은 상금으로 맛있는 간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주는 도전 1000곡! 아이들이 어찌나 잘 듣고 잘 맞추는지 선생님들은 듣고도 이게 그 곡이야 하며 신기해하기도 했습니다. 셋째주와 넷째주는 서로 연결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벚꽃길 & 사진콘테스트 및 액자 만들기를 했는데요. 어떤 사진이 일등으로 뽑힐지 기대가 두구두구... 담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우리 반 아이가 일등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살짝 (^^;;) 하지만 모든 성도님들은 공편한 심사를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는 아이들의 생일파티를 즐거운 레크레이션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요?? 성도님들! 다니엘 유초등부를 위해 많이 기도해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권효가



부생모육 그은혜는 하늘같이 높건마는
청춘남녀 많건마는 효자효부 없는지라
시집가는 새아씨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장가드는 아들네는 살림나기 바쁘도다

제자식이 장난치면 성골병을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싫어 성을내고
시끄러운 아이소리 듣기좋아 즐겨하며
부모님이 두말하면 잔소리라 빙정댄다

자식들의 오줌뚱은 손으로써 주무르나
부모님의 가래침은 더러워서 밥못먹고
과자봉지 들고와서 아이손에 쥐어주나
부모위해 고기한은 사울줄을 모르는고

개가앓고 누우며는 가축병원 달려가나
늙은부모 병이나면 균심건정 아니하네
열자식을 키운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열자식은 한부모를 귀찮다고 생각하네

자식위해 쓰는돈은 체산없이 쓰련마는
부모위해 쓰는돈은 체산하기 바쁘도다
자식들을 헤리고는 외식함도 찾건마는
늙은부모 위해서는 외출할줄 모르도다

그대몸이 소중커든 부모은덕 생각하고
서방님이 소중커든 시부모를 존중하라
죽은후에 후회말고 살아생전 효도하면
하나님께 복을받고 자식들게 효도받네



아름다운 이야기

지금은 아니지만...그때는 딸 하나를 둔 평범한 아빠였다. 시작은 우연한 실수에서 비롯됐다. 친구에게 건다는 게 그만 엉뚱한 번호를 눌렀다.
어쩌면 하늘의 뜻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여보세요”

“아빠~”

아마도 내 딸 현정이와 비슷한 또래로 초등학교 저학년 쯤 되는 여자아이 목소리였다.

“넌 아빠 번호도 모르니? 지장이라도 하지!”

.괜히 내 딸 같아서 핀잔을 준 건데 ...

“아빠 바보 나 눈이 안 보이잖아?....”

순간 당황했다. ‘아! 장애 있는 아이구나’

“엄만 요 앞 슈퍼 가서 대신 받은 거야,

아빠 언제 올거야?”

너무 반기는 말투에 잘못 걸렸다고 말하기가 미안해서...

“아빠가 요즘 바빠서 그래”

대충 얼버무리고 끊으려 했다.

“그래도 며칠씩 안 들어오면 어떡해...?”

엄마는 베개싸움 안 해 준단 말야.”

“미안~ 아빠가 바빠서 그래, 일 마치면 들어갈게”

“알았어 그럼 오늘은 꼭 와 끊어....”

막상 전화를 끊고 나니 걱정됐다. 애가 실망할까봐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거짓말한 거니까, 큰 잘못이라도 한 것 처럼 온종일 마음이 뒤풀렸다.

그날 저녁, 전화가 울린다. 아까 잘못 걸었던 그 번호...왠지 받기 싫었지만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여~~ 여보세요?” 침묵이 흐른다.

“여보세요”

다시 말을 하니 웬 낯선 여자가...

“죄~ 죄송합니다. 아이가 아빠한테서 전화가 왔대서요....”

“아~ 네... 낮에 제가 전화를 잘못 걸었는데 아이가 오해한 거 같아요.”

“혹시 제 딸한테 아빠라고 하셨나요? 아까부터 아빠 오늘 온다며 기다리고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엉겁결에...”

“아니에요. 사실 애 아빠가 한달 전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우리 딸이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여서 아빠가 더 곁에서 보살피다보니, 아빠에 대한

정이 유별나네요”

“아~ 네 괜히 제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제 딸한테 '아빠가 바빠서 오늘도 못가니 기다리지 말라'고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될까요?”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잠도 안자고 기다리는게 안쓰러워서요. 죄송합니다. 참에 이름은 '지연'이에요. '유지연' 5분 뒤에 전화를 부탁드릴게요”

왠지 모를 책임감까지 느껴졌다. 5분 뒤에 전화를 걸자 아이가 받는다.

“여보세요.”

“어, 아빠야~ 지연아~ 뭐해?”

“아빠 왜 안와? 아까부터 기다리는데...”

“응~ 아빠가 일이 생겨서 오늘도 가기 힘들 거 같아”

“아이~ 얼마나 더 기다려 아빤 나보다 일이 그렇게 좋아?”

아이가 갑자기 우는데... 엉겁결에...

“미안 두 밤만 자고 갈게”

당황해서 또 거짓말을 해 버렸다.

“진짜지? 꼭이다 두 밤 자면 꼭 와야 해. 해해”

잠시 뒤에 아이 엄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는데 "너무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다. 아이한테 무작정 못 간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뒤에나 간다고 했다니까, 알아서 할테니 걱정 말라며 안심시켜 줬다. 그리고 이를 뒤 이젠 낫설지 않은 그 번호로 전화가 왔다.

“아빠!”

울먹이는 지연이 목소리

“아빠! 엄마가 아빠 죽었대. 엄마가 아빠 이제 다시 못 온대... 아니지? 이렇게 전화도 되는데 아빠 빨리 와, 엄마 미워 거짓말이나 하고... 혹시 엄마랑 싸운 거야? 그래서 안 오는 거야?

그래도 지연이는 보려 와야지 아빠 사랑해 얼른 와~”

가슴이 먹먹하고 울컥해서 아무 말도 못한 채 한참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지연아 엄마 좀 바꿔 줄래?”

전화를 받아 든 지연이 엄마는 미안하다며, 애가 하도 막무가내라 사실대로 말하고,

전화 걸지 말했는데도 저런단다. 그 말에 딸 둔 아빠로써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제안을 했다.

“저기~~ 어머니! 제가 지연이 좀 더 클 때까지, 이렇게 통화라도 하면 안 될까요?”

“네? 그럼 안 되죠. 언제까지 속일 수도 없고요”

“지연이 몇 살인가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아~ 네 저도 딸이 하나 있는데 3학년 이거든요. 1학년이면 아직 어리고 장애까지 있어서,

충격이 더 클 수도 있을테니까 제가 1년 쯤이라도 통화하고, 사실대로 얘기하면 안 될까요?”

“네? 그게 쉬운 게 아닐텐데”

“제 딸 보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한 해 한 해가 다르더라고요. 좀 더 크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 같아요”

오히려 내가 지연이 엄마한테 더 부탁을 했다. 그땐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연이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 뒤부터 자주는 아니지만, 보름에 한번쯤 지연이와 통화를 했다.

“아빠 외국 어디에 있어?”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서 뭐하는데?”

“어~ 빌딩짓는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지”

“아~ 거긴 어떻게 생겼어?”

어릴 적 아버지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노동자로 몇해 다녀오신 적이 있어서, 그때 들은 기억들을 하나 둘 떠올려 지연이한테 말해줬다. 그렇게 한 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내 딸 현정이 선물 살 때 지연이 것도 꼭 챙겨서 택배로 보냈고... 그렇게 지연이의 가짜 아빠 노릇을 전화로 이어나갔다.

“당신 어린애랑 요즘 원조교제 같은 거 하는 거 아냐?”

한때 아내에게 이런 오해를 받을 만큼 자주 통화도 했다. 현정이는 커 가면서...

“아빠 과자 사와 아이스크림 피자~ 아빠 용돈 좀~~”

늘 그런 식인데...지연이는...

“아빠 하늘은 동그라미야 네모야? 돼지는 얼마나 뚱뚱해? 기차는 얼마나 길어?”

등등 사물의 모양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이었다. 그럴 때면 안쓰러워 더 자상하게 설명하곤 했지만, 가끔 잘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기도 했다. 그렇게 3년쯤 지난 어느날, 지연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어~ 지연아 왜?”

“저기~ 나 사실은... 작년부터 알았어. 아빠 아니란거”

“.....”

뭐라 할 말이 없었다.

“엄마랑 삼촌이 얘기하는 거 들었어 진짜로 아빠가 하늘나라 간 거”

“그그그~~ 그래 미안~ 사실대로 말하면 전화통화 못할까봐 그랬어”

“근데 선생님이 4학년이면 고학년이래. 이제부터 더 의젓해야 된댔거든”

“지연아! 근데 진짜 아빠는 아니지만 좋은 동무처럼, 통화하면 안 될까? 난 그 러고 싶은데 어때?”

“진짜~ 진짜로? 그래도 돼?”

“그럼 당연하지”

그 뒤로도 우린 줄곧 통화를 했다. 다만 이제 아빠라고는 안 한다. 그렇다고 아저씨도 아니고 그냥 별다른 호칭 없이, 이야기하게 됐는데 솔직히 많이 섭섭했다. 그래도 늘 아빠로 불리다가 한순간에 그렇게 되니까... 그렇다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기도 위하고...

시간이 흘러 지연이가 맹학교를 졸업하는 날이 됐다. 전화로만 축하한다고 하기엔 너무나 아쉬웠다. 몇 해 동안 통화하며 쌓은 정이 있는데 그날만은, 꼭 가서 축하해주고 싶었다.

목욕도 가고 가장 좋은 양복도 차려 입고 한껏 치장을 했다. 비록 지연이가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처음 만나는 날인데, 그 옛날 아내와 선보려 갈 때보다 더 신경 쓴 거 같다.

꽃을 사들고 들어간 졸업식장에서, 지연이 엄마를 처음 만났다. 너무 고맙다며 인사를 몇 번씩 하시는데 웬지 쑥스러웠다. 잠시 후 졸업장을 받아든 아이들이, 하나 둘 교실에서 나오는데, 단박에 지연이를 알아볼 수 있었다. 신기하게도 그 많은 아이들 中에

유독 지연이만 눈에 들어왔으니까,

“지연아!”

지연이 엄마가 딸을 부른다. 그러자 활짝 웃으며 다가온 지연이한테...

“지연아! 누가 너 찾아오셨어. 맞춰봐” 하며 웃자,

지연이는...

“누구?” 하며 의아해 할 때... 나는 지연이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지연아! 축하해”

그러자 갑자기 지연이가 큰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지연이 엄마도 나도 어쩔 줄 모르는데, 지연이가 손을 더듬어 나를 꼭 안았다.

“아빠! 이렇게 와줘서 너무~~ 너무 고마워”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눈에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난 이미 오래 전부터 너무나 착하고 이쁜 딸을 둘이나 둔... 너무 행복한 아빠였음을 그날 알게 됐다.

좋은글 中

4 시사용어 Briefing

01. 펜스룰

펜스룰은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엎칠 만한 상황 자체를 아예 피하려는 행태를 통칭한다. 펜스룰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2002년 미국 의회 전문지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아내 외의 여자와 절대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데서 유래되었으며 최근 미투 운동이 확산하자 금융업계도 몸을 사리며 조심하는 분위기이다.

02. 관세 탠트럼

관세 탠트럼은 미국 정부의 공격적인 무역 정책으로 촉발된 금융 시장의 요동을 뜻한다. 관세와 발작을 뜻하는 영어 단어 탠트럼이 결합해 만들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가 일제히 급락하였다.

03. 거울세

거울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백악관에서 철강, 알루미늄 규제 조치 명령에 서명하며 언급한 단어로 보복관세를 의미한다. 호혜세와 비슷한 뜻으로 추정된다. 호혜세는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산 제품에 다른 국가들이 매기는 세금만큼 수입세를 매기는 조치를 말한다.

04. 경제 불쾌지수

경제 불쾌지수란 국민들이 현 경제 상태에 대해 느끼는 불만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지표다. 기온과 습도에 따라 사람들이 느끼는 불쾌함의 정도를 가리키는 기상용어 불쾌지수를 경제학에서 차용한 것으로 흔히 고통지수라고도 불린다. 경제 불쾌지수는 한 나라의 1년간 경제성과를 통해 현재 경제상태의 호황이나 불황 여부를 판단하는 가능자 역할을 한다.

<이달에 issue>

아파트 & 택배

요즘 한참 메스컴을 통해 회자되고 있는 한 아파트의 택배대란 이야기다.



비단 한 아파트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유독 한 아파트만 회자 되고 있는 것은 그곳에서 사용한 문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갑질 의혹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갑질은 갑,을의 고용관계에서 고용주가 고용인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하는데 택배 배송과 관련하여 한 아파트에서 옥내 출입을 막으면서 자신들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는 옥외차량을 통제한다는 식의 문구가 문제가 된 것이다. 처음에 옥내 출입을 막은 것은 택배차량이 후진하면서 놀고 있던 아이가 치밀 뻔한 사건을 통해 차량을 통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 이지만 어느 순간 처음에 시작한 이야기는 빠지고 관리사무소와 택배회사 사이의 감정싸움 식으로 이야기가 번지면서 문제는 더 심각하게 훌러가고 있다. 이 문제가 계속해서 진정이 되지 않아 정부가 나서서 실버 택배를 통해 중제에 나섰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절반의 운영비가 지원 된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국민청원글이 올라왔고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하며 실버택배 지원을 철회한 상태이고 아파트와 택배 회사 간에 대립으로 문제는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일을 경험한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나와 의견이 굉장히 잘 맞는 사람, 그냥 비슷비슷 한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과 살아간다. 그런 와중에 나만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면서 의견을 조율한다면 모두가 즐거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화평하라고 하셨다.

상대방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화평한 나라가
될 것이다.

기존 택배

실버택배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사람을 끄는 사람과 등을 돌리게 하는 사람의 차이는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차이에서 출발한다. 고객의 기분을 알아차리기 위해 한번 더 생각하고, 팔고 난 다음 고객에게 전화 한통을 거는지 여부가 탁월한 성과를 내는 세일즈맨과 고전하는 세일즈맨을 갈라놓을 수 있다.

아랫사람의 의견을 몇 분 더 들어주는지 여부가 따르고 싶은 리더와 멀리하고 싶은 관리자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오며 가며 인사를 주고받는 자세, 칭찬 빈도와 칭찬 방식이 동료관계의 질을 좌우한다. 전화나 인사, 칭찬이나 사과 및 감사 방법이나 횟수에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자신을 얼마든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작은 친절에 대한 감사 정도와 표현방식,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지에 따라 부부간의 금술이 달라진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창한 작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깔끄럽다면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그곳에는 항상 자기 자신이 있다.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변화 시킬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간단한 법칙 1.2.3

하고 싶은 말은 1분하고 2분 이상 들어주고 3분 이상 맞장구를 쳐라!

우리 몸 살리는 죽의 종류와 효능.



1. 흰죽

쌀에 물만 넣어 쑤기도 하고, 쌀을 곱게 갈아서 쑤기도 한다.

쌀은 대장암의 발생을 억제시키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어준다. 섬유질 성분이 있어 해로운 중금속이 우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준다.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2. 팥죽

팥을 삶아 으깨어 거른 물에 쌀을 넣고 쑨 죽으로, 동짓날에는 마치 설날에 떡국을 끓여 먹듯 팥죽을 쑤어 먹었다. 팥에는 비타민 B1이 아주 많이 들어 있어 각기병의 치료약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신경을 많이 쓰는 정신근로자나 수험생 등에게 더욱 좋은 식품이다. 또 신장병, 당뇨병 등에도 유효하다.

3. 콩죽

흰콩을 갈아 쌀을 섞어서 쑨 죽으로 단백질, 지방, 칼슘 등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이다. 식욕이 떨어지는 봄철에 특히 좋고, 쑥을 넣어 끓이면 향기가 더욱 좋다.

4. 녹두죽

녹두를 체에 걸러 가라앉힌 웃물에 앙금과 쌀을 넣어 쑨 죽. 녹두는 몸에 쌓인 노폐물을 해독하며 열을 내리고 식욕을 돋우는 역할을 한다. 필수아미노산과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소화를 돋고 배뇨 작용도 뛰어나다. 그러나 몸을 차게 하고, 강한 해독 작용을 가지고 있다.

5. 우유죽(타락죽)

찹쌀을 먹거나 맷돌에 갈아서 우유를 넣고 끓인 죽이다. 궁중에서 10월부터 보양식으로 먹던 음식이다. 허약증을 보하고 피의 생성을 촉진하여 오장육부를 윤택하게 하므로 마른기침이나 변비는 물론 식도암, 위암으로 체력이 허약한 암 환우가 먹으면 좋다.

<성경 인물 소개>

라헬(Rachel)

뜻 : 암양

- 1) 야곱의 애처로 요셉과 베냐민의 모친이다(창 29:, 30:22-25).
- 2) 가나안으로 여행하는 도중에 여브랏 부근에서 베냐민을 낳고 난산 끝에 죽어서 그곳에 장사 되었다(창 35:16-20).

◇ 야곱의 둘째아내-- 불신앙으로 슬피우는 어미의 표상 라헬은 라반의 둘째 딸로서 근친혼과 일부다처가 허용되었던 고대 근동지방의 풍속을 따라 야곱의 둘째 아내가 되었다. 소녀시절 어느 날 메소포타미아 하란지방 어느 광야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고 있을 때 고종사촌 오라버니인 야곱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야곱은 외사촌 누이동생인 라헬의 아릿다움에 반하여 무려 14년간 이라는 긴 세월 동안 라반에게 봉사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칠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칠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창 29:20)이 글귀를 보아 그 누구보다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아하고 현명한 라헬이 이스라엘 족장의 아내로서 부족했던 점은 시조모인 사라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앞서 불신앙적 수단 방법을 자행했다는 것이다. 라헬은 언니 레아가 계속하여 루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출산하자 심히 시기하여 어느날 밤 남편을 자신의 여종 빌하의 방에 들여보내어 아들을 낳도록 했다.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창30:3). 빌하를 통하여 얻은 아들이 단 납달리이며, 이들은 훗날 레아의 시녀 실바가 낳은 아들갓 아셀과 함께 북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비로소 라헬의 태에서 예정과 섭리의 아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그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함이었다 하더라](창30:22-24). 여기에서도 우리는 인위적 임태와 신앙적 임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선 신중하게 구원사의 매듭을 풀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하나님의 라헬의 결정적 과오는 하란을 떠날 때 그녀의 아버지의 우상 드라빔을 훔친 일이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 훗날 라헬의 후손들이 망하고 북방민족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녀는 애곡하는 어머니의 표상이 되었던 것이다(렘31:15-16).

할렐루야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을 경외합니다
존귀하시며 높임 받으시기 향당하신
좋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진 땅에 살면서
우리 당진순복음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붙여 주신 알진 량진 성도들과
더불어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려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복되고 좋은 아름다운 교회에서
지역의 많은 멀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믿음이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뜨겁게 살아 움직이는 성도들로 채우시고
목사님과 전도사님 사모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배우고 성장하여서
많은 열매 큰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김정애 집사

● 이달의 교회소식

1. 어린이축제 / 5월 6일 오후2시~6시
2. 특별새벽기도회 / 5월 7일~11일
3. 야외예배 / 5월 13일
4. 효도여행 / 5월 15일 한택수목원
5. 부부세미나 / 5월 17일
6. 부부헌신예배 / 5월 20일 오후7:30
7. 제3회 교회배 탁구대회 / 5월 26일 오후2시~6시

● 공지사항

1. 순복음 라이프지 전회 제출자: 김남현 집사, 현덕규 권사,
이영주 집사, 인성자 집사.
* 선물 증정했습니다.
2. 5월 생활실천표어 / 서로 사랑하며 살자
3. 5월 신앙서적 /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한기홍’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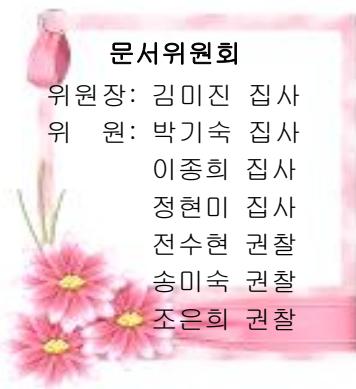
● 이달의 교우소식

1. 이사심방 / 윤총기권찰(강연순권사), 송정숙집사 – 5월 7일
2. 아파트입주 / 김성대성도(김정화집사) – 5월중



상담전화 받습니다.

이영주사모:010-7747-5278, 윤희자전도사:010-3066-0544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